

2026 년 9 월 10 일

가족 여러분께:

환영합니다! 저는 2026-2027 학년도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학 첫 날은 연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이 날은 수많은 가능성과 새로운 시작이 꽃피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녀분이 유치원 생이 되어 자랑스럽게 커다란 자신만의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게 되었던, 중학생으로 새로운 사물함의 비밀번호 조합을 시도해 보았던, 또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으로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개학 첫 날 사진을 찍었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동일한 약속과 가능성을 느끼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육자이자 학부모로서, 저는 많은 첫 날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역할의 모든 순간에 저는 매일 뉴욕시공립학교를 여러 가정에서 얼마나 믿고 계신 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환영받고, 지지받으며, 배울 준비가 된 기분으로 학교에 등교하길 바라는 동일한 희망을 공유합니다. 교육감으로서 저의 첫 번째 “첫 날”에, 저는 모든 어린이가 모든 학교에서 이런 희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 직책을 맡은 이래로 저는 다섯 개 보로 전역에 걸쳐 수 백명의 학생, 가정 및 지역사회 여러분들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제가 나눈 대화를 통해 저는 안전하고, 학업적으로 수준 높으며, 진정 융합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저의 우선 순위들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저희는 모든 학생이 유대감을 느끼고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학습 환경 속에서 본인의 잠재력을 맘껏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새 학년도를 시작하며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고 필요하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학교장, 교사 및 교직원들 또한 모든 순간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들은 모든 학생을 환영하며 저희는 모든 가정에서 여기서 소속감을 느끼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배움과 성장이 함께하는 멋진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번 학년도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낼 성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가며,



카마르 H. 새뮤얼스
뉴욕시 교육감